

이차전지 소재 · 분석 분야 전문가 한자리에

전북테크노파크 · 국립군산대, '이차전지 고도분석 컨퍼런스' 개최... 최신 동향 공유 · 산업 경쟁력 강화 모색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와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 주관한 '제1회 2026 이차전지 고도분석 컨퍼런스'가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Thermo Fisher Scientific Korea 수서오피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소재 분석과 고도분석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산·학·연 전문가 간 기술 교류와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이차전지 소재 특성평가와 열화 원인 분석, 분석 표준화 등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주요 기술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 첫날에는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소재 분야 고도분석 장비 활용 사례를 주제로 한 튜토리얼 세션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소재 특성 분석과 미세구조 분석, 원소 분석, 분광 분석 등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분석장비와 응용 사례



전북테크노파크와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 주관한 '제1회 2026 이차전지 고도분석 컨퍼런스'가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Thermo Fisher Scientific Korea 수서오피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를 공유했다. 둘째 날에는 약 90명이 참석한 이차전지 소재분석 산업 동향과 고도분석 기반 소재 분석 및 열화 해석을 주제로 기술 세미나를 진행했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전문가들은 이차전지 소재 분석 표준화와 산업화 전략, 소재 열화 메커니즘 해석 등 관련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

의했다. 이번 행사는 이차전지 소재 분석 분야의 실무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도분석 장비와 분석기술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실시간 고도분석 장비관리자 교육과 연계해 전문 인력의 분석 역량 강화와 기술 교류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광원 전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사

업단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이차전지 소재 · 분석 분야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센터 구축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기업의 분석 역량 강화와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컨퍼런스 조직위원장인 고려대학교 광명원 교수는 "이차전지 산업은 소재 기술과 분석 역량이 함께 뒷받침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번 행사가 산·학·연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기술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테크노파크와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은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이차전지 고도분석 분야의 기술 교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분석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상호존중 · 소통 문화 확산 나서

전주페이퍼 · 전주원퍼워, 전 임직원 대상 조직문화 교육 실시

전주페이퍼와 전주원퍼워가 상호 존중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전주페이퍼와 전주원퍼워는 최근 임직원 485명을 대상으로 '상호존중과 양방향 소통'을 주제로 조직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생산현장 근무자와 사무직 직원, 주·야간 근무자 등 전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3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서울사무소 임직원들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강사로는 한국인재경영교육원 강은미 대표가 나서 조직 내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비롯해 세대 간 소통 방법, 효과적인 협업 방안 등을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했다. 특히 구성원 간 신뢰와 원활한 소통이 안전한 근무환경을 물론 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교육은 일반적인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참여형 프로그램과 질의응답을 병행해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소통 사례와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직군과 세대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오상근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몽골 달란자드가드시와 경제협력 교류회 가져

기업상담회 통해 협력 모색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6월 30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전북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몽골 달란자드가드시 경제협력 교류회 및 기업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전주상공회의소와 몽골 달란자드가드시가 체결한 경제 · 산업 분야 교류 확대 및 몽골 유학생의 안정적인 교육 ·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사업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트 데네더르지 몽골 달란자드가드시 시장과 오치르바트 다바체렌 남고비주 상공회의소 회장, 몽골 기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북지역 기업인 60여 명도 함께해 양 지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6월 30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전북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몽골 달란자드가드시 경제협력 교류회 및 기업상담회'를 개최했다.

또 김기수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을 비롯한 도내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기업 간 교류 활성화와 실질적인 협력 방안 마련에 힘을 보탰다.

이어 열린 기업상담회는 식품 ·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건설 · 건축자재, 유통, 전기 · 금속, 관광 및 기타 서비스 등 6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참가 기업들은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몽

골 현지 시장 수요와 유통 여건을 확인하는 한편, 수출과 유통,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오상근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완주서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길환)는 6월 30일 완주군 이서면에서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깨끗한 농촌 환

경 조성을 위한 농촌 일손돕기 및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NH농협은행 전

북본부 임직원들이 참여해 지역 농가의 영농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농경지와 농촌 주변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며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양과 소비촉진 운동' 동참 이어져

이수회 · 농촌진흥청 · 한국농수산물 등 13톤 구매로 농가 지원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이 추진 중인 양과 소비촉진 운동에 도내 유관기관들이 잇따라 동참하며 양과 가격 회복과 농가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북농협은 최근 이수회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대학교 등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양과 팔아주기 운동과 단체 구매에 참여해 총 13톤의 전북산 양과를 소비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농협은 지난 15일 양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배 농가의 상황을 알리고 소비 확대를 요청하는 서신을 유관기관에 전달했다.



이에 이수회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구매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단체 구매를 실시했으며,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우체국쇼핑 임점도 추진하는 등 양과 소비 확대와 가격 회복에 힘을 보탰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 2급 이상 간부직원 승진 · 이동 인사 단행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7월 1일자로 2급 이상 간부직원에 대한 승진 및 이동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1(가)급과 1(나)급, 2급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승진과 전보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1(가)급 승진이동은 재난안전처장 전준만, 재생에너지처장 고병찬, 충북본부장 조영준, 경남본부장 조영용 등

4명이다. 1(가)급 이동은 대전세종충남본부장 이세호, 인천본부장 최철호, 기획혁신처장 오치영, 전기안전연구원장 임성진, 제주본부장 심재원, 경기본부장 안원형 등 6명이다. 1(나)급은 승진 1명, 승진이동 4명, 이동 12명으로 모두 17명이 인사 대상에 포함됐다. 2급은 승진 1명, 승진이동 6명, 이동 21명 등 총 28명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다. /오상근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